

이찬진 금감원장 "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 예상 못 해" [뉴스시스Pic]

등록 2026.06.22 16:03:34 | 수정 2026.06.22 17:00:24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 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류현주 김선웅 이지민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'0주 배정' 사태에 대해 "예상하지 못했던 일"이라며 검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.

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"당연히 (공모주가) 배정될 것으로 생각했다"며 "이런 사태는 생각도 못 했다"고 말했다.

그는 "대표 주관사의 의사소통 등이 영향을 미친 건지,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"이라고 설명했다.

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, 공모주 배정 불발에 대한 사실관계와 투자자 보호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.

이 원장은 "투자자 입장에서 차라리 청약을 안 했으면 (상장) 첫날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돈이 다 묶여 있던 상태"라며 "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"고 밝혔다.

금융당국의 해외 주식 투자 자제 기조가 공모주 미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.

그는 "(사모 청약을 통해) 돈을 다 모아서 환전이 돼 있는 상태를 확인했는데, (공모주) 배정이 안 된 게 금감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"라며 "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"고 말했다.

또 "글로벌 투자은행(IB)들은 금감원 감독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가능하지만 회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"면서 "꼭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요청할 수도 있다"고 덧붙였다.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. 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 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
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
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김선웅 기자 =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
2026.06.22. mangusta@newsis.com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ryuhj@newsis.com, mangusta@newsis.com, ezmi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